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 활동 실태와 정책과제

Social, Cultural and Leisure Activiti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Current State and Policy Implications



이민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전문연구원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 장애인은 외출시 집 밖 활동에서 45.3%가 불편함을 느끼며, 대중교통 이용시에는 39.7%가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에 대한 만족 비율은 43%, 불만족 비율 57%로 불만족 비율이 높았다.

장애인의 사회 및 문화·여가활동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정책제언으로 첫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 지역사회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제고의 노력, 사회활동에 대한 인적서비스 지원(활동지원서비스 등)의 확대 기초를 유지하고, 둘째 이동편의 보장 범위를 물리적 편의성 이외의 범위(의사소통의 어려움, 동반자의 부재 등)로 확대하여 관련 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제안한다. 셋째, 문화행사 관람시 장애의 특수성에 대한 이해와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며, 마지막으로 관광지, 문화여가시설 등에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 등 정보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1. 들어가며

장애인에 대한 정책을 5년주기로 계획하고 방향성을 제시하는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에서 제4차 계획(2013년~2017년)의 비전은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더불어 행복한 사회'이다. 장애인 뿐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문화·여가생활은 그 중요성을 더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의 삶의 질 향상, 행복한 삶에 문화여가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고 있음에 기인한다.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결과

를 통해 사회참여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외출과 이동을 중심으로 사회활동을 살펴본 후,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생활의 실태를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기반으로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이동편의 지원과 문화활동 지원 등 관련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장애¹⁾인의 외출

1) 외출 가능 여부

1) 본 원고에서는 『장애인복지법』제2조에서 제시하고 있는 15개 장애유형을 중분류인 외부신체기능장애(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정신적 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내부기관장애(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로 구분하여 제시함.

표 1. 혼자 외출 가능 여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¹⁾		정신적 장애 ²⁾	내부기관장애 ³⁾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예	86.3	88.7	64.7	86.8	84.3
아니오	13.7	11.3	35.3	13.2	15.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1) 외부신체기능장애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안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2) 정신적 장애 :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3) 내부기관장애 :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장루·요루장애, 뇌전증장애 (이하 동일)

외출은 사회생활의 기본이 되는 활동으로 장애인이 혼자 외출이 가능(보조기구 활용을 포함한) 정도를 알아보면, 84.3%는 혼자 외출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15.7%는 혼자서는 외출이 불가능하다고 하여 외출 시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 보면 외부신체기능장애,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최소 86% 이상이 혼자 외출이 가능한 반면, 정신적 장애의 경우 혼자 외출이 가능한 비율이 약 65%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정신적 장애의 경우 신체의 이동 가능성이나 편의시설과 같은 물리적 환경 이외의 문제로 혼자 외출이 어려워지며 그 비율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더 높음

을 보여준다.

2) 외출 현황

외출을 얼마나 자주 하는지 지난 1달 동안의 외출실태를 살펴보면 장애인의 67.3%는 거의 매일 외출을 하였으며, 20.3%는 주 1~3회 외출을 하였으며, 7.2%는 월 1~3회, 5.2%는 전혀 외출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외출의 주된 목적은 통근·통학이 38.0%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산책·운동(28.9%), 병원치료(12.3%), 친척·친구·이웃 방문(7.9%) 등의

표 2. 장애인의 외출 빈도(지난 1개월 기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거의 매일	68.5	68.0	60.7	64.6	67.3
주 1~3회	19.7	21.4	19.2	24.4	20.3
월 1~3회	6.7	7.3	10.4	6.2	7.2
전혀 외출하지 않음	5.1	3.3	9.6	4.8	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3. 장애인 외출의 주된 목적 (지난 1개월 기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	시각,청각,언어			
통근·통학	39.2	38.7	37.8	20.7	38.0
병원 진료	12.6	9.0	9.0	30.1	12.3
쇼핑(물건사기)	3.1	3.4	5.4	2.7	3.4
산책·운동	27.9	30.4	28.4	35.5	28.9
친척,친구,이웃방문	8.0	9.1	5.8	6.6	7.9
여행	0.0	0.1	0.0	0.0	0.0
지역사회시설이용 및 행사참여	7.3	8.1	12.5	3.6	7.8
일자리 구하기	0.9	0.4	0.2	0.7	0.7
기타	0.9	0.8	1.0	0.1	0.9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순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통근·통학의 비율(20.7%)이 낮고, 병원진료(30.1%), 산책·운동(35.5%)의 비율이 높았고, 정신적 장애의 경우 지역사회시설이용 및 행사참여의 비율(12.5%)이 타 장애유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 1개월 동안 한번도 외출하지 않은 경우 그 주된 이유는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60.9%)로 나타났다. 이외에 '하고 싶지 않아서'(12.1%), '외출도우미가 없어서'(9.8%) 등의 이유가 있었다.

표 4. 장애인의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지난 1개월 기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	시각,청각,언어			
교통이 불편해서	0.2	0.0	3.3	5.7	1.1
주차시설 등 편의시설 부족	0.8	0.4	1.7	0.0	0.9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70.2	54.1	37.2	71.2	60.9
외출 도우미가 없어서	7.5	16.7	14.0	0.0	9.8
시간이 없어서	0.2	0.0	1.6	0.0	0.5
하고싶지 않아서	8.2	20.8	18.1	8.3	12.1
주위 시선 때문에	0.4	3.1	5.7	0.0	1.9
기타	12.5	4.9	18.3	14.7	12.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5. 집 밖 활동시 불편 정도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	시각,청각,언어			
매우 불편하다	16.0	15.3	21.4	22.3	16.8
약간 불편하다	28.2	28.5	32.7	22.6	28.5
거의 불편하지 않다	39.4	42.5	34.8	39.2	39.5
전혀 불편하지 않다	16.5	13.7	11.1	15.8	15.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뇌병변 장애 및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장애 때문에 몸이 불편해서' 외출하지 않는 비율이 높았고, 시각·청각·언어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경우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및 '외출도우미가 없어서'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 장애유형에 따라 외출하지 않는 주된 이유는 차이가 있었다.

3) 장애인의 집 밖 활동

장애인이 집 밖 활동²⁾에서 경험하는 불편정도

와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를 살펴보았다. 장애인의 45.3%는 집 밖에서의 활동이 불편하다고 응답한 반면, 54.7%는 불편하지 않다고 응답하여 장애인의 절반 조금 안되는 비율은 집 밖에서의 활동에서 불편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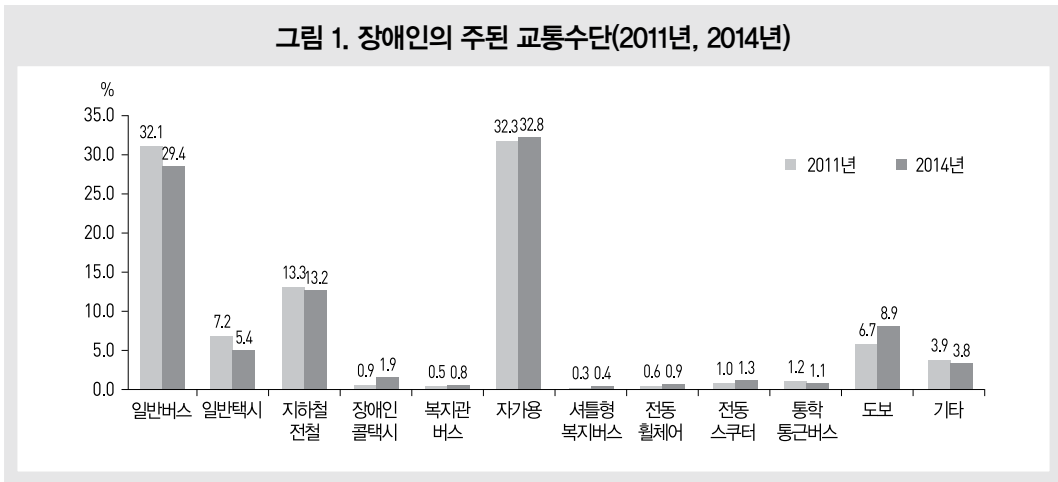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47.0%), '외출시 동반자의 부재'(29.5%), '주위 사람들의 시선'(11.4%), '의사소통의 어려움'(11.1%)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장애유형별로 보면, 지체·뇌병변 장애 및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표 6. 집 밖 활동시 불편을 느끼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	시각,청각,언어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62.1	27.3	7.6	53.1	47.0
외출시 동반자가 없어서	24.5	35.8	42.7	28.8	29.5
주위 사람들의 시선 때문에	10.4	4.2	26.8	12.8	11.4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있어서	2.0	31.9	23.0	1.7	11.1
기타	1.1	0.9	0.0	3.6	1.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2) 집 밖 활동이란 외출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가구내 활동을 제외한 모든 활동을 의미(강민희, 2009).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을 주된 이유로 꼽은 반면, 시각·청각·언어장애 및 정신적 장애의 경우 ‘외출시 동반자의 부재’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집 밖 활동이 불편하다고 하여 장애유형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4)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자가용(32.8%), 일반버스(29.4%), 지하철·전철(13.2%), 도보(8.9%), 일반택시(5.4%), 장애인콜

택시(1.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장애인의 교통수단 이용과 비교하면, 일반버스, 일반택시 이용률은 다소 감소한 반면, 장애인콜택시, 자가용 이용률은 소폭 증가함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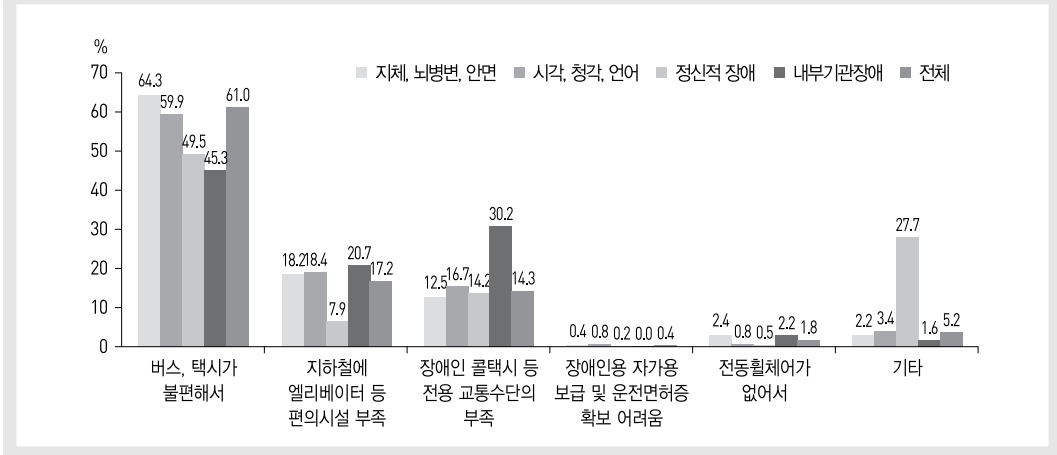
장애인의 39.7%는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며, 60.3%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여 교통수단 이용에 따른 어려움은 2011년에 비해 다소 증가하였다(어려움 34.7%, 어렵지 않음 65.3%).

표 7.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 정도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매우 어렵다	14.3	12.5	17.7	13.8	14.2
약간 어렵다	27.5	23.5	21.6	19.7	25.5
거의 어렵지 않다	40.2	47.1	45.9	46.5	42.7
전혀 어렵지 않다	18.1	16.9	14.8	20.0	17.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그림 2.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는 '버스, 택시가 불편해서'(61.0%),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의 부족'(17.2%), '장애인 콜택시 등 전용 교통수단의 부족'(14.3%) 등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의 조사결과와 비교하면, '지하철에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2011년-20.4%)은 다소 감소한 반면, '기타'(2011년-2.5%)의 이유가 높게 나타났는데 특히 정신적 장애의 기타 비율이 27.7%로 높았다.

3.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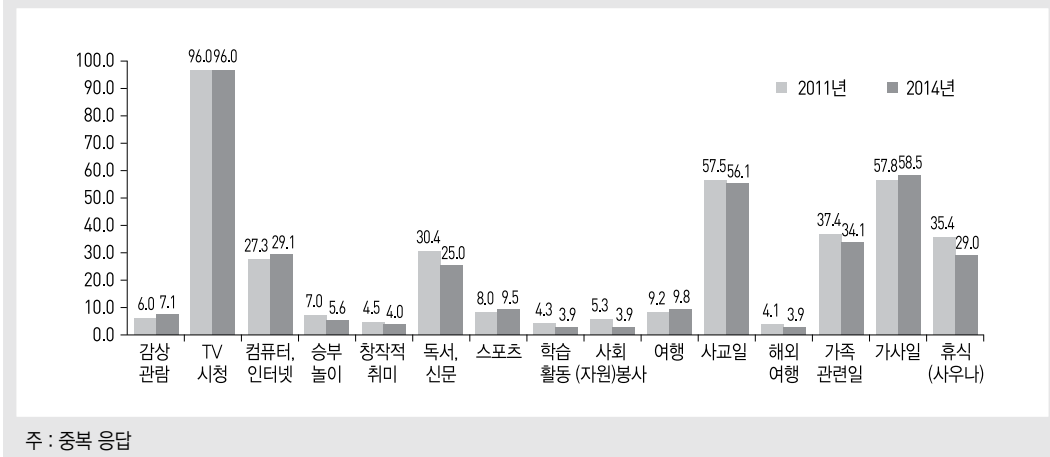
장애인의 지난 1주일 간 문화 및 여가 활동을 알아보았는데, 여전히 TV 시청 등 소극적 활동이 주

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주일 간 TV 시청을 한 비율은 96.0%로 가장 높았고³⁾, 다음으로 가사일(장보기 포함) 58.5%, 사교일(친구·친척만남, 모임) 56.1%, 가족관련 일(외식, 쇼핑, 주말농장 등) 56.1%, 컴퓨터·인터넷 활용 29.1% 등으로 나타났다. 감상 및 관람(연극, 영화, 연주회 등) 7.1%, 창작적 취미(미술, 서예, 글쓰기, 악기연주 등) 4.0%, 스포츠활동 9.5%, 여행 9.8% 등 적극적인 문화향유 활동에는 낮은 비율을 보였다. 2011년의 결과와 비교하면, 감상 및 관람, 컴퓨터 및 인터넷활용, 스포츠 등의 참여 비율은 소폭 증가한 반면, 독서·신문, 가족관련 일은 감소했다.

장애인의 문화·여가활동에 대한 만족 비율은 42.9%이며, 불만족 비율은 57.1%로 나타났다. 이는 2011년도 결과(만족 비율 39.5%, 불만족 비

3) 전국민 대상으로 실시된 "국민여가활동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간 주된 여가활동이 TV시청인 비율이(76.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이외에 인터넷 검색(11.5%), 산책(4.5%), 게임(4.0%) 등의 순으로 나타나 TV시청이 보편적인 여가활동 내용임을 보여준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다만, 장애인에 있어서 여가시간의 TV시청이 다른 여가활동(외부활동, 문화활동 등)의 대안이 가능한 상태에서의 선택인가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그림 3. 장애인의 문화 및 여가활동(2011년, 2014년)



율 60.5%)에 비해 만족하는 비율이 증가한 결과 이나 그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절반 이상은 현재의 문화·여가 활동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장애유형별로는 내부기관장애인의 문화·여가 활동에 대한 불만족 비율이 64.6%로 가장 높아서, 시각·청각·언어장애인의 불만족 비율 53.3%에 비해 10% 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고 있다.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경우, 주된 이

유로 '건강이나 체력 부족'이 32.1%로 가장 높았으며, '경제적 부담'이 30.7%로 나타났다. 이외에 개인적 이유인 '시간이 부족해서' 10.5%,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9.2%로 나타났으며, '주위 여가시설의 부족', '여가시설내 편의시설 부족', '이용교통수단의 불편' 등 환경적 이유를 꼽은 비율은 6.1%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차이로 특징적인 부분은 내부기관장애는 '건강이나 체력 부족'(59.3%)을 주된 이유로 꼽고 있으며, 정신적 장애는 '의사소

표 9. 문화 및 여가활동 만족도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매우 만족한다	5.0	5.1	7.5	6.3	5.4
약간 만족한다	36.6	41.6	38.0	29.1	37.5
약간 불만이다	40.2	38.2	35.1	39.4	39.1
매우 불만이다	18.2	15.1	19.4	25.2	18.0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0. 문화 및 여가활동에 불만족하는 주된 이유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경제적 부담	32.8	30.3	21.3	27.0	30.7
시간이 부족해서	11.8	13.1	2.5	2.2	10.5
교통혼잡 및 이용 교통수단 불편	2.8	2.3	1.9	1.2	2.5
도우미가 없어서	2.1	3.8	10.2	2.2	3.4
여가시설이 부족해서	2.2	1.7	2.6	1.0	2.1
여가시설내 편의시설 부족	1.3	2.4	1.3	0.1	1.5
여가정보 및 프로그램 부족	1.7	1.6	6.8	0.1	2.1
적당한 취미가 없어서	8.0	10.8	14.6	5.8	9.2
건강이나 체력 부족	35.1	24.7	14.4	59.3	32.1
의사소통의 어려움	1.9	9.0	24.3	0.8	5.8
기타	0.2	0.2	0.0	0.1	0.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통의 어려움'(24.3%)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는 점이다.

장애인의 문화·예술 행사의 참여(향유) 수준을 알아보았다. 지난 1년간 문화·예술 행사를 1회 이상 관람한 비율은 영화를 제외하고는 모두 2%대를 넘지 못하였으며 가장 비율이 높은 영화 관람도 23.1%에 불과하며, 지난 1년 동안 어떤 문화·예술 행사이든 관람한 경험이 없는 장애인의 비율이 74.2%(약 2/3)로 나타났다(표 12).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향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에 따르면, 문화·예술 관람을 연 1회 이상 한 비율은 71.3%, 이 중 영화를 연 1회 이상 본 비율은 65.8%로 나타나 장애인의 문화·예술 향

유 수준이 전체 국민의 1/3을 조금 넘는 정도인 것으로 볼 수 있다.

문화·예술 행사 관람을 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비용부담'(36.8%)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음'(15.6%), '주위 시설이 없음'(11.0%)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시간이 나지 않아서'(10.6%), '교통의 불편'(8.8%), '관련 정보의 부족'(6.4%) 등이 어려움으로 나타났다⁴⁾.

4. 장애인의 투표

정치적 참여의 가장 기초적인 행위라고 할 수

4)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문화향수실태조사에서는 문화·예술 관람시 어려움으로 '비용부담'(35.5%), '시간이 나지 않아서'(19.1%), '관련 정보의 부족'(17.2%),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음'(10.7%) 등으로 나타났으며, '주위 시설이 없음'(8.9%)와 '교통의 불편'(5.1%)은 장애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문화체육관광부, 2014).

표 11. 문화·예술행사 관람 1회 이상인 경우(지난 1년 기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	시각,청각,언어			
문학행사 (시화전, 도서전시회 등)	2.1	2.1	2.8	3.0	2.2
미술 전시회	2.9	3.0	2.5	2.1	2.9
서양음악(클래식, 서양악기 등)	1.1	1.0	1.2	2.3	1.2
전통예술(국악, 풍물 등)	1.5	1.5	1.3	1.8	1.5
연극	1.8	1.9	2.3	3.8	2.0
뮤지컬	1.8	1.3	2.7	4.6	2.0
무용(서양무용, 한국무용 등)	0.3	0.2	0.4	0.2	0.3
영화	23.4	17.8	30.5	24.7	23.1
대중음악(가요콘서트) 등	2.4	1.9	2.5	1.5	2.2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표 12. 문화·예술행사 관람 회수(지난 1년 기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	시각,청각,언어			
없음	73.9	79.3	67.3	73.1	74.2
1~3회	14.8	11.3	17.5	11.4	14.2
4~6회	5.4	4.5	6.9	8.9	5.5
7~12회	3.7	2.8	5.0	4.4	3.7
13회 이상	2.3	2.2	3.3	2.2	2.4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 문화예술행사 - 문학행사, 미술전시회, 서양음악, 전통예술, 연극, 뮤지컬, 무용, 영화, 대중음악(가요콘서트)

있는 투표 참여율을 보면, 장애인의 77.3%가 지난해 6회 전국 동시지방선거(2014년 6월 실시)에서 투표를 한 것으로 나타나 2011년의 71.6%에 비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정신적 장애의 경우 투표한 비율은 43.0%로 낮아서 타 장애유형과 차이가 있었다.

투표를 하지 않은 이유로는 ‘몸이 불편해서’가

43.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하고싶지 않아서’(34.1%)가 다음으로 높았다. 이외에 ‘시간이 부족해서’(8.4%), ‘정보가 부족해서’(5.2%)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정보가 부족함을 투표하지 않은 이유로 꼽은 경우는 시각·청각·언어장애 및 정신적 장애에서 7% 대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선거와 관련된 각종 정보(후보자에 대한

표 13. 문화·예술행사 관람시 가장 큰 어려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비용이 많이 든다	38.0	37.8	28.7	37.4	36.8
시간이 나지 않는다	12.6	9.6	4.2	4.6	10.6
관심있는 프로그램이 없다	14.5	17.2	18.9	15.4	15.6
교통이 불편하다	10.5	7.2	4.3	5.8	8.8
편의시설 불편(놀이방 포함)	4.4	1.8	3.8	6.2	3.8
관련정보가 부족하다	5.4	7.3	9.4	7.2	6.4
함께 관람할 사람이 없다	3.3	5.2	14.9	6.2	5.2
가까운 곳에 시설이 없다	9.9	12.1	13.1	14.9	11.0
기타	1.6	1.7	2.8	2.2	1.8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정보 등)를 시각장애나 청각장애, 지적장애나 자폐성 장애 등 장애유형별 특성에 맞게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5. 나가며

비장애인의 경우 매우 일상적인 행동일 수 있는 외출과 영화관 관람이 장애인에게는 주위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행사'가 될 수 있다. 장애인의 외

출과 외부활동의 제한은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소극적인 사회참여로 이어질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문화 및 여가 생활 지원을 위한 국가의 노력은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문화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이동약자 편의증진법』(2005년 제정) 등에 의해 정부는 이동약자의 편의증진을 위해 저상버스 지원(2014년 예산 378억원), 장애인콜택시 지원(2014년 예산 55억원) 등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한 복권기금

표 14. 2014년 6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 여부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 뇌병변, 안면	시각, 청각, 언어			
예	81.4	80.6	43.0	77.3	77.3
아니오	18.6	19.4	57.0	22.7	22.7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만 19세 이상

표 15. 투표하지 않은 이유

(단위: %)

구분	외부신체기능장애		정신적 장애	내부기관장애	전체
	지체,뇌병변,안면	시각,청각,언어			
교통이 불편해서	1.2	0.0	1.8	0.0	1.1
편의시설·편의제공 부족	0.6	0.2	2.7	0.0	1.0
몸이 불편해서	49.5	39.6	31.0	64.7	43.9
도우미가 없어서	2.2	2.6	4.8	3.0	3.0
정보가 부족해서	3.6	7.6	7.0	4.6	5.2
시간이 없어서	10.7	10.9	2.4	5.2	8.4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서	30.5	38.7	40.9	21.9	34.1
주위의 시선 때문에	0.3	0.2	2.0	0.0	0.7
기타	1.3	0.0	7.5	0.6	2.6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과 지자체 예산의 매칭으로 장애인을 포함한 문화 소외계층을 위한 문화바우처 사업(1인당 연 5만원의 문화바우처 지급)을 2014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2014년 기준 복권기금의 408.6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용자는 약 155만명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지자체에서도 특별운송수단 운행대수를 법정 고시 수준⁵⁾에 맞추기 위한 노력을 통해 질적인 성장은 차후의 과제로 남기더라도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운송 차량의 양적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서울시 100대(2003년)→423대(2013년); 대구시 30대(2009년)→103대(2015년); 특장차량 기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의 집 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끼는 비율은 증가했으며(2011년 40.7%, 2014년 45.3%),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도 증가하여(2011년 34.7%, 2014년

39.7%) 이에 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부족’ 및 ‘외출시 동반자의 부재’가 집 밖 활동시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했으며,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 부족’이나 ‘버스, 택시가 불편해서’가 교통수단 이용시 어려움을 느끼는 주된 이유에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음은 정부 등의 장애인의 자립생활지원, 이동편의를 높이기 위한 노력의 일정 부분 성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의 어려움’(특히 시각·청각·언어장애, 정신적 장애의 경우)이나, 대중 교통 이용시 어려운 이유로의 ‘기타’ 비율의 증가(특히, 정신적 장애의 경우)는 지금까지 물리적인 편의시설 확대에만 주력해 온 부분을 재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장애인의 문화·여가 생활에 대한 만족 정도는

5)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하면, 특별운송수단 운행대수의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 대수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 당 1대를 말함.

약 43% 수준으로 2011년에 비해서는 증가하였으나 장애인들의 약 57%는 문화·여가 생활에 불만족하고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이 지난 1년간 영화를 관람한 비율이 23.1%이고 어떤 유형이든 문화행사를 관람한 비율이 25.8%에 지나지 않아 전체 국민의 1/3 수준에 불과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인의 문화소외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현 저소득층 중심의 문화바우처 사업이나 찾아가는 문화행사 등으로는 장애인의 문화생활을 비장애인 수준으로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이 필요한가?

첫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증진, 지역사회 시설에 대한 장애인 관련 편의시설 설치, 장애인의 이동지원을 위한 인적 서비스 지원의 확대(활동지원 서비스 등) 등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높일 수 있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경주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종합계획”에서 저상버스 41.5% 확보,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 고시수준 100% 달성 등을 확정하여 고시하였다. 또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을 위한 외출·이동지원 등을 위한 제도인 활동지원서비스의 대상자 확대(『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의 3급까지 신청 가능)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이는 장애인의 외출, 지역사회 시설 이용 등 기본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사회참여 확대의 토대가 될 것이다.

둘째, 이동편의를 위한 노력을 물리적 편의성 증진에서 보다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리적 편의성 증진의 노력의 효과는 일부 장애유형에 한정될 수 있으며, 지적장애, 지체성 장애 등의 정신

적 장애와 시각·청각·언어 장애의 경우 그 이외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지체·뇌병변 장애 및 내부기관장애의 경우 물리적 편의시설 확대 및 전용 교통수단 등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정신적 장애, 시각·청각·언어장애의 경우 외출시 동반자의 필요나 의사소통의 어려움, 주위의 시선 등 물리적 접근 이외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의증진의 노력은 장애인의 통합된 문화여가활동의 기본조건이 된다는 점에서 또한 중요하다.

셋째, 장애인 전용 교통수단으로 장애인콜택시의 지자체별 운행 대수의 증가 및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률이 증가한 것은 성장이라고 볼 수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형 셔틀버스, 장애인콜택시를 주된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율은 3.1%에 불과해 장애 전용 교통수단의 증가 및 이용 대상 기준의 확대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또한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이동지원 서비스에 대한 이용자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교통상황에 대한 실시간 정보 제공 등의 고려가 필요하다.

넷째, 문화·여가 행사 관람시, 장애의 특수성과 다름에 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접근성 보장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문화시설에 대한 물리적 접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이며, 영화·연극·뮤지컬 등 문화행사 관람 등에 대한 시각·청각·언어장애에 대한 접근성 보장(수화통역 서비스, 한국 영화에 대한 자막 서비스 등)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의 접근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관광지역 편의시설 설치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여가활동을 위한 정보 인프

리를 보장하는 내용으로, 문화정보, 여행정보 등에 장애 관련 편의시설 설치 등 접근 편의 정도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제공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제공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컴퓨터, 인터넷 사용 등에 대한 장애인 정보화 교육도 동반되어

야 할 것이다. 장애와 비장애의 통합은 장소와 물리적 통합을 넘어선 상호 이해와 소통이 가능한 관계의 가능성이 열려있는가에 초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